

연중 제20주일

기도서 P. 417 C해
 제1독서(예 레 38,4-6, 8-10)
 제2독서(로 마 11, 33-36)
 복 음(마 태 16, 13-20)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강론



백 계 칼

소 순 형 신부

한 착한 학생이 천주교를 믿겠다고 몇개월을 잘 준비하고 있었다. 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경문을 암기하고, 교리를 열심히 익혔으며, 영세한 다음 교우들이 하여야 할 의무를 서서히 실천하고 있었다. 그의 가정은 유교집안 이었고 일년에 한번씩 공자님에게 제사도 모셔야 할 향교의 큰 책임이 있는 그의 아버지였다. 그는 4대 독자였다.

그의 거동이 수상한 어느날,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 오라 하시더니 “너, 요새 어느 교회에 나가는 모양인데, 만일 예수를 믿으면 내 아들이 아니니 당장 나가”라는 불호령이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큰일났다 싶어, “저는 예수교를 믿지 않고 천주교를 믿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그것이지 뭐냐고 호통을 치셨다는 것이다.

천주교는 공자님을 하나의 큰 성인으로 보고 있고, 제사도 모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대답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 몰래 영세를 받고 그의 착한 태도로 결국은 아버님도 천주교에 나오게 되었다. 성교황 10세의 성인전을 보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한(Canonization) 성인 성녀가 5,000여명이 넘는 가운데 성인 품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인 성녀는 치명 성인 성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복자 복녀도 있다. 11월 1일에 품에 오르지는 안했지만 천당에 계신 성인 성녀를 공경하는 모든 성인의 첩보도 있다.

누군가가 세상살이를 고해라 했다:

오늘 복음 성경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나중에 혹독한 박해를 많이 받지만 실망하지 말고, 당신인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평범한 신자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은가? 신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때문에 말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한들 천주교회 주임신부>



봉사와 지배

흔히들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말한다. 아닌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다 보고 있으면 바보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힘들여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인간이 얻고자 하는 쾌락을 누릴 수 있으니, 한번 맛을 들여 놓으면 인이 박히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쏟아놓는 정보에 계속 접하다보면 사고방식마저 뒤바뀌게 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이 한 주체로서 생각하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주어지는 정보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 되코보니 장사꾼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려 광고를 내게 마련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운하게 해주는,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프로그램도 더러 있다. 그렇다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오락성을 전혀 무시하자는 이야기도 물론 아니다. 매주 방영되는 외국영화(윌트네 가족 등), 얼마나 아름다운 내 용인가? 어더 그뿐인가, 재미를 결들인 특수 기동대나 기동 순찰대도 얼마나 알차고 호젓한 프로그램들인가? 우리네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실정에서 하는 소리이다.

길가에서 낮잠자는 개에게 맛있는 과자까지 주어가며 교통질서를 회부시키는 기동 순찰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가? 하나의 드라마로 물릴 수도 있겠지만, 성탄절에 교통 경찰관의 앞에 선물꾸러미가 쌓인다는 외국의 이야기가 드라마가 드라마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다. 자기의 목숨보다 시민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한 경찰관의 이야기가 우리네 체질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로 끝나야 할 것인가? 진정한 지도자는 강력한 힘으로 이끌고 가는 지배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따라가게 만들며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 중의 한 사람이어야 한다.

숲 정이 산책



죽어서도 놀부가 될까요?

김 병 엽 신부

「죽은 흥부와 놀부가 염라대왕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 옆에는 커다란 꿀통과 똥물통이 마련되었다.

대왕...(두 통을 가르키며) “놀부, 네 이놈. 어느 통에 들어가겠는고?”

놀부...(꿀통을 쳐다 보는 흥부에게) “네 이놈, 어디를 쳐다 보는고! 꿀통에는 내가 들어갈 참인데, 네가 눈뚱을 드러. 고약놈 같으니라고.”

(일이 이쯤되니 형에게 순명을 잘하는 흥부는 코를 쥐어잡고 똥물통에 들어갔고, 죽어서까지 욕심만 내는 놀부는 히히덕거리며 꿀통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대왕...“자, 이제 그만 나왔!”

(아쉬운 놀부와 기분이 좀 부드러워진 흥부, 하릴없이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왕...“이제는 서로 상대방의 몸을 핥어! 깨끗이 핥어!”

놀부...(오만상을 찌푸리고) “네 이놈, 흥부야. 이럴줄 알았으면 네가 꿀통에 들어갈 일이지...” 하고 호령을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지나친 욕심도 항상 불행을 부르는 법이다.

윗사람들이여, 제발 아랫 사람 좀 생각하며 살아라. 남을 위한 삶은 참기쁨과 큰 보람이 있는 법이다.

자, 지금 내 모습이 T.V 화면에 「사는 그대로」 비추인데도 부끄럼이 없겠는가? 항상 거울을 보듯 살자. (전통 주입신부)

동 전 한 닢

한 바 오로

하루 하루를 넘기기가 껍 힘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마음을 새롭게 가진다면 기쁨이 없지도 않다. 기쁨을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 보자. 주는 기쁨이 참기쁨임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지난번 고창의 음성 나환자 정착촌인 동혜원 공소 낙성식에서도 보았다. 7백만원의 공사비가 뜻있는 몇 사람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이다. 풍돈에서부터 큰돈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마음으로 모아진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버림받은 모습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져 꽃을 피운 것이다.

정의 평화 활동을 위한 성금도 그렇다. 단돈 천원이면 어떻단 말인가?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닢이나 빈자일등(貧者一燈)은 어느 세계에서나 값진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 잊고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마태오 복음 25장 31절부터 읽어 보아라. 잡자기 쏘아진 폭우에 집과 식구를 잃은 사람들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이다.

카 터 재 선(?)

나 종 윤(스테파노)

우리는 정치발전이 한창(?)이고, 미국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절대적인 맹방이다. 그러나 이 두나라는 여러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4년전에는 「조지아」의 망롱장사가 선풍을 일으키더니 금년엔 「허리우드」의 광대(?)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선풍이란 민주주의에선 하나의 멋이요 매력이다. 이 매력이 후진국에서는 조용한 선거, 돈 안쓰는 선거란 명분으로 여지없이 깃잡히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이 돈 안쓰는 민주선거이다.

같은 도시 「디트로이트」에서는, 박수와 환호와 「광파르」의 협연 속에서, 「리진」을 제40대 공화당후보로 지명했다. 배우라고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은막에서 펼치는 배우의 역은 다양하다. 거기에서 「리진」이 대통령역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허상을 실상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그의 경력도, 대통령의 직책도 무난히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리진」이 현 「카터」대통령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도 선거에서 지면 그만 두는것도 부럽지만, 그보다는 대통령을 뽑는 미국 시민의 지혜가 더 부럽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리진」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 정치사는 하나의 큰 이벤을 기록하게 된다. 그것은 배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가 아니라,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39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누구도 이혼한 적이 없다. 아예 그런 사람을 미국의 여성은 용서하지 않았다. 「에드워드 케네디」가 하늘을 찌를듯한 인기 속에서 예선에 나섰지만 결국 쓴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하버드」대학 대리시험 사건, 여비서 익사 사건, 현 부인과의 별거가 결정타였다.

아마 「리진」에게도, 그의 이혼 사실이 미국 여성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질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불의와 부정이 용납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인격과 정적이 대통령의 척도가 돼야 한다는 사고방식, 그 높은 국민의식에 우리 선망이 어린다.

얼마전 「아듀! 아프리카」란 영화를 봤다. 그 영화에서 느낀것은—민주주의란 피의 산물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는 국민의 지혜가 요구된다는 사실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명년에는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한다. 막걸리보다는 후보자의 능력을, 능력보다는 인격을, 그리고 양심과 도덕을 지지하는 미국 시민, 그들의 위대한 민주정신을 배우두는게 좋을 것 같다.

(김계 천주교회)

전주 해성(海星) 동창회

순정에서 함께 진리를 배운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갖습니다.

동문들은 꼭 나오셔서

우리의 우정을 더욱 두터이 하십시오.

전주 해성중·고 동창회장 김 욱 기

□ 일 시...80년 8월 23일(토) 오후 3시

□ 장 소...모교 대강당

□ 안 건...① 임원선거 ② 기타

□ 행 사...① 시계탑 기공식

② 친목경기

□ 회 비...3,000원

□ 지참물...소명합판 사진 1매

의양간을 고치는 자세로

—순교자 현양대회시

성가 경연대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순교자 현양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다섯번째, 그간 비차례의 현양대회를 치루면서 느낀 경험과 소감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아쉬움도 더욱 크다. 문제는 그러한 아쉬움들을 어떻게 채워낼까에 있다.

첫째로, 대회 당일의 진행(프로그램) 문제이다. 깊은 층으로 이루어지는 남녀노소, 학력 등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먼 본당에서의 출발시간과 귀향시간까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어려움이 많다. 멋진 방안의 제안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될 뿐이다.

둘째로, 제반 경시대회시 본당간의 현격한 격차를 적절히 해소시키는 문제이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쓸만한 사람은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 가운데도 서울로 몰리는게 우리의 현실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력은 실력대로 평가할 것이나, 참여도를 높이 평가할 계획이다. 교리경시대회도 그렇고 사생대회도 그렇다.

더욱 신경을 쓸 일은 성가경연대회의 평가이다. 1년전에 장수본당의 평가를 소홀히 한 걸을 솔직히 고백하고, 금년에는 최대한의 신경을 쓸 것이다. 비록 소홀고 의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앞으로라도 더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기회를 선용해서, 아무리 적은 시골 본당이라도 함께 모여 성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일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대회진행에 관한 멋진 제안이 있으면 「520 전주시 서노총동 천주교 교구청 내, 평협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교구 평협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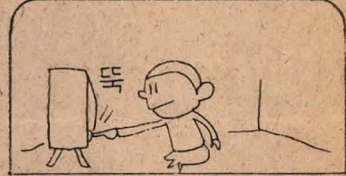
韓國 平協 부회장에 재선

한국 평협은 지난 8월7~8일간 서울에서 각교구 평협 대표와 전국단위 단체대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전국 지도신부(오태순)와 감사(유진훈)가 구속된 상황 아래에서 치루어지는 총회인지라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로 새로워지자”는 총재 김재덕 주교님의 격려로 회의는 더욱 열기를 띠었다.

총회는 각 교구와 단체가 준비해온 안건(한국 선교 200주년 기념행사의 효율적인 방안·농촌과 도시 교회간의 일치 강화 방안·평협 활동 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산과 예산을 다루었다. 임원개선 총회이기도한 13차 총회는 회장에 김기철(서울 평협 회장, 유입), 부회장에 조성호(전주 평협 회장, 유입)·최병욱(가톨릭 농민회장, 신임)·최상선(서울 평협 부회장, 신임)씨를 선출하고, 감사에는 이우근(원주)·권순기(대구)씨를 선임했다.

요심이 (367) 김병오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대

유광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④ 4448 · ⑤ 2176

茶房 門을

열었습니다.

전주 전신전화국 앞 옛자리 지하

☎ ⑤ 5013 · 5011

임금님

◆ 오리포 생크 · 까스기구 일체
백품포 보청기

동남 종합 싱크주방

동남 의료 과학 상사
김 낙 균(요셉)
전화 3-6900
전주시 서노총동 639-40
(중앙성당 정문옆)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
질,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당)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명)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
겠습니다.

대 중 정 육 점

주 최 창 육(가스발)
모래내시장 시외버스 정류소 앞

테니스용품일체 · 상패 · 컵 · 트로피
체육복(휴리닝) · 등산장비 · 패난트
우승기 · 타올 · 쇼핑백 · 각종기 및
기타 운동기구

대한 체육사

이리시 중앙동 3가 7번지
(황금당 앞)
주 소 병 기
전화 ④ 9887

◎담고약L · 우진파스

주효능 · 신경통 · 근육통
진통 · 운동전후

◎부이리진

주효능 · 식육축진 · 탈육축진
영양장애

우진제약(주) 전북사무소
소장 이 동 우(비오)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 그리경시대회...8월 31일(일)
※ 범위...① 국민학교부-가. 마르코 복음, 나. 주요기 도문, 다. 가톨릭 교리서 3편(그리스도의 계명), ② 일반부-가. 마르코 복음, 나. 예언서(아모스, 호세아, 미가), 다. 가톨릭 교리서 제 2편(교회와 성사)
※ 응시 예정자수 보고-8월 25일까지(평형 공문 80-4호 참조)
 2.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 사생대회 주제...『6·25와 순교자』
 3. 레지오 마리에 간부 피정...3차 8월 22일(금) 오후 2시~23일(토), 가톨릭 센터에서
 4. 전(사제) 모임...18일(월) 오후 5시~19일(화) 오후 2시, 중앙성당에서
 5.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전북지부 제 2차 총회...8월 30일(토) 오후 2시~31일(일) 오후 6시, 전통성당 회비-3천원, 지참물-수도복·기도서·묵주·성경·성가집·세면도구
 6. 제 2 지구 신부 단합대회 여행...8월 18일(월)~20일(수) 미사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동창회...8월 23일(토) 오후 3시, 모교 강당에서-※ 2면 광고 참조
- 문학감좌 안내...8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김병익(문학평론가), 주제-문학의 기능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정현
 ③3874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김병규

1. 성모회 총회: 16일(오전 10시) 강당
 2. 착한 사마리아인회: 18일 오후 7시30분
본당신부 사무실
 3. 병자발문: 19일(화)
 4. 중·고 교리: 18일~23일 오후 3시
일반교리(대학생 포함)-18일~23일, 오후 8시
준비물-신·구약성서, 가톨릭 교리서 지참
현양대회 대비, 많은 신자 참석 바람
 5. 공식미사: 17일 오후 3시
 6. 예비자 교리: 전신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람
 7.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다울주(24일)
영육간의 기도 바랍니다
 8. 미납된 교무금을 납부합니다
 9. 레지오 마리에 피정: 5월의 마돈나 꾸리아
일시-10월 13일~15일에정, 장소-광주 피정의 집
등록금-6,000원, 접수-8월 18일부터 선착순
- 지난주 봉헌금: 354,958원

(노송동) 전화 ⑦032 주임 신부 김정웅
 보좌 신부 나원근
 사도 회장 박춘

1. 제 8 차 성령세미나 개최: 내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2. 성서감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3. 노송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성령세미나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합니다
5.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요한복음 전체
6. 인후아파트 특전미사: 매주(토) 오후 8시
인후아파트 어린이 교리: 매주(토) 오후 3시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영철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첫 영성체반 어린이 30명
 2. 반석회 모임: 23일 오후 7시30분-덕진사진관
 3. 고등학생 수화강의: 방학동안, 매일 오후 2시~4시
고등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교리교사 위로 여행: 전남 백도, 20~23일
 5. 젊은이 성가연습: 매주일 오후 2시~3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85,18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호
 사도 회장 조성섭

1.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후 히메레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범신부님 지도
2. 중·고학생 미사: 매주일 오전 9시
학생들은 학생미사에 꼭 나오세요
3. 대학생 미사: 매주일 저녁 8시, 대학생도...
4.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5. 교리교사 하기 단합대회
장소-홍동, 19일~23일 3박 4일
인원-8명, 범신부님 인솔

6. LM 간부 피정: 22일~23일(3차)
7. 복자 신용조합 전화 안내: ④ 4 4 0 4
□ 지난주 봉헌금: 241,960원

(서학동) 전화 ②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혈수

1. 축! 영세자 15명: 축하합니다
 2. 할머니회. 반장님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중·고생 특별교리: 19일부터 23일까지(오후 5시)
 4. 어머니 미사시간 신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장기호·박병환
신자들의 기도-은노균
- 지난주 봉헌금: 143,230원 교무금: 31,000원

(숲정이) 전화 ⑦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17일 공식미사 후
 2. 중·고등학생 하기교리: 18일~23일
강사-수녀님·정주복 선생님
 3. 지구별 웅변 성가경연대회 예선: 8월 24일
 4. 신축기금 모금으로 가정방문 매일 계속합니다
형제 자매님 협조바랍니다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중앙성당 신입액중 임관섭(3만
원), 오혜레나(10만원), 전매청 성화회원 이동(32만
7천원), 중앙 안혜레나(1만원), 파티마본당 신입액
중(1만원), 중앙성당 신입액중(3만6천5백원), 진북
동 익명(20만원)
- 지난주 봉헌금: 193,25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수
 보좌 신부 김기석
 사도 회장 유석중

1. 피미시움: 오후 2시
 2. 주일학교 첫 영성체: 공식미사 중에
 3. 젊은이 예비자교리: 매주 수·목 저녁미사 후
 4.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평일 5시30분, 주일 6시
저녁미사-7시 30분
 5. 『비둘기 3호』 원고모집: 편집부에 제출 바람
 6. 다음주 전례담당(24일)
아침미사: 사회자-박중규, 독서-①배양길②이진홍
공식미사: 사회자-이준영, 독서-①이영태②이덕주
저녁미사: 사회자-경양주, 독서-①이진홍②임순만
- 지난주 봉헌금: 386,98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주일학교 하기 성경학교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
합니다
 2. 수녀원 신축성금 모금: 교우들의 헌금을 바랍니다
 3. 바오로회 월례회: 23일
 4. 예비자 교리안내: 지난주 숲정이 참조
 5. 전임(문정현) 신부님 영명축일: 24일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93,505원 교무금: 40,000원